

“TASAKI(타사키)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오픈

TASAKI(타사키) 유럽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

TASAKI(타사키)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일본의 럭셔리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이다.

1954년 일본에서 설립된 TASAKI(타사키)는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인 Mayfair(메이페어)에 유럽 최초의 독립형 부티크를 오픈했다. TASAKI(타사키)가 첫번째 유럽 플래그십 스토어로 영국을 선택한 것은 TASAKI(타사키)가 글로벌 브랜드로써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5,015평방피트(466m²)인 TASAKI(타사키) 부티크는 기하학적인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춰 파사드 디자인의 TASAKI(타사키)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의 직사각형 프레임의 크기 및 균형을 반영하며 특별하고 균형 잡힌 공간을 구축하였다.

부티크는 총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을 전시하는데 전념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TASAKI(타사키)의 크레이티브 디렉터 프라발 구롱의 작품인 TASAKI 아틀리에와 함께 TASAKI 컬렉션 라인과 TASAKI M/G가 포함되어 있다. 3층에는 고객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TASAKI(타사키) 부티크에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8개의 독점적인 고급 주얼리 작품으로 구성된 “brilliant grace(브릴리언트 그레이스)”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컬렉션은 신비롭고 이국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깊고 조용한 수중 세계의 로맨틱한 이미지와 반짝이는 햇빛에 의해 파도 밑에서 발견된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TASAKI(타사키)는 일본과 미얀마에 위치한 자사 진주 양식장을 통해 최고급 진주를 제공하며, 환경 파괴 없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게끔 포용하는 문화를 장려하며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TASAKI(타사키)의 현대적 우아함의 세계가 반영된 새로운 부티크와 최고 수준의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주얼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장 정보

TASAKI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

주소: 170 New Bond Street, London W1S 4RB, United Kingdom

층별 공간: 1층 81 m²; 2층: 79m²3층: 70 m²; 4 층: 66 m²; 5 층: 56m²; 6 층: 40 m²; B1층 74m² 총: 466 m²